‘도청 별관’ 전남대 교수들 갈등

122명 “철거” 19명 “보존” 엇갈려

“현안 사업, 지역 사회 의견 모아야”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가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대 교수 사회에서도 ‘철거’와 ‘보존’을 놓고 미묘한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대 교수 등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인 최협 교수는 최근 내부 게시판(아르미)에 “철거반대 서명 교수 19명 중 2명은 10여년전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찬성했었는데 180도 입장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적 과정에서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의도의 순수성과 논리의 일관성”이라면서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용역을 맡은 S교수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S교수는 즉각 “5·18은 아직 진행형이며 바른 자리매김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보전이 최우선이며 용역보고서도 현장 보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철거를 명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S교수의 반박에 다시 당시 용역보고서 도면 등을 올리는 등 재반박했다.

여기에 철거반대 서명을 했던 한 교수는 “특정 정치적 사안에 이름을 걸고 서명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지는 것”이라며 “서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에 4~5명의 교수들이 가세하면서 누적 조회수가 3천건을 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위촉돼 문화전당 건립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편입된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를 놓고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반으로 나뉘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전남대 교수도 122명이 찬성, 19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의 한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건립 사업의 핵심시설인 옛 전남도청 건물에 대한 철거(별관)를 놓고 교수들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지역 현안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난달 3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향 구자범 상임지휘자 취임연주회에서 단원들이 열정적인 연주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마에스트로 具, 쏟아진 갈채

광주시향 취임연주회 열정적 지휘 감동 선사

‘광주시향,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다’

지난달 3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구자범 상임지휘자의 취임연주회가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했다.

이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구 지휘자의 열정적인 지휘 모습과 광주시향의 멋진 하모니에 열띤 박수를 보냈다.

독일 하노버 국립오페라극장 수석 지휘자를 거쳐 지난 3월 광주시향의 상임 지휘자로 자리를 옮긴 구 지휘자는 광주 시향과 강도 높은 연습을 진행하는 한편 지정석 제 도입 등 파격적인 행보로 광주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왔다.

광주시향 공연으로는 유례 없이 전석 매진(1천 700석)을 기록한 이날 공연장에는 현장 판매표를 구입하기 위해 연주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공연에서 이미 독일 거주 당시 구 지휘자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첼리스트 조영창은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b단조 작품 104’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특히 대곡인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을 연주할 때는 정단원 80명 이외에 20명의 객원 단원이 함께 참여, 구 지휘자의 리드 아래 웅장한 하모니를 연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관객들의 관람 태도 역시 나무랄 데 없었다. 청소년층이 주를 이루던 예전 공연과 달리 이날 객석을 메운 성인 관객들은 숨죽이며 공연을 관람하고, 곡이 끝날 때마다 열정적인 박수로 광주시향에 화답했다.

구 지휘자는 5월 29일에는 광주교도소에서 연주를 할 예정이며 6월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려줄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SI 영향에 전남도 소비 촉진 운동

전남도가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형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돼지가격 하락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멕시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고 71℃ 이상 온도에서 가열할 경우 바이러스가 죽게 됨에 따라 돼지고기나 돼지 육가공품을 먹는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돼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돼지 사육농가에는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멕시코 인플루엔자 관련 도축장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및 도축검사시 개체별 생체·해체검사와 식육중 잔류미생물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심 가축은 즉시 격리·이동시키고, 도축장 출입 가축 수송 차량 및 식육 운반차량, 작업도구, 작업대 등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도축관련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참으로 눈물겨운 자위로다

‘영호남 화합’ 이순신 축제

전남·경남 각 지자체 축제교류 협력 서명

전남과 경남 각 자치단체에서 열렸던 이순신 축제가 앞으로 영·호남 교류를 통한 화합의 축제로 변모한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경남 통영에서 명량대첩축제, 여수 거북선 대축제 등 이충무공 축제를 영호남이 함께 화합해 만들어가기 위한 영호남 축제 교류협력 서명식을 했다.

교류협력 대상 축제는 전남도와 해남·진도군의 명량대첩축제와 경남 통영의 한산대첩 축제, 여수의 거북선 대축제, 경남 남해의 노량해전 승첩제 등이다.

주요 교류협력 대상은 양 지역 축제 프로그램에 상대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축제 개최시 공동 홍보부스를 마련해 축제를 홍보키로 했다.

또한, 각 지역 축제 관계자와 주민들이 다른 지역 축제를 방문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이충무공 관련 사업에 양 지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해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길 정비도 영호남이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전남과 경남도는 이번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남해안 연안과 바다에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역사문화 이벤트 개최, 학습 프로그램 개발, 이순신 백의종군 길 걷기 등 공동 이벤트도 개최해 나가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 외국인 첫 현황 조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월 한 달간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와 합동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가 부처별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외국인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지만, 부처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 현황을, 교과부는 외국인 자녀 초·중등 학생 현황을,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각각 조사했다. /연합뉴스

담양 군민들 “광주시로 통합해 달라”

추진위, 주민투표 등 통합운동 본격화

전남 담양군을 광주시로 통합하기 위한 주민운동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정구선 전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추진위는 임원진을 구성하고 회칙과 읍·면 조직을 정비했으며 앞으로 순회 주민 설명회를 열어 통합여론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도 갖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담양은 지리적으로 광주와 가깝고 행정 구역상 전남도에 속해 있지만 지역개발 등 모든 면에서 소외돼 있다”며 “광주와 담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담양을 광주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지역민들로 구성된 광주시·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는지난 2007년 출범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227-9600 • FAX:227-9500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7-12-0034
함평C.C
새한종합건설 남 진 희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정 정 공 고
본 지 2009년 3월 31일자 게재된 주식회사 주은전기와 주식회사 해성전기의 분할합병공고의 내용 중 『2009년 04월 01일 개최된 각사의 임의 주주총회』를 『2009년 03월 30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로 정정공고 함.
2009년 5월 1일

한정승인공고
광 유 갑 수(321110-1654320)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 건 번 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 531
공 고 인:윤영자, 유경화, 유재은, 유수미
한정승인수리일:2009. 4. 8
공고기간:2009. 5. 1~2009. 6. 30
연 락 처:광주 광산구 신가동 1110
신창3차부영사랑으로 306-603
유 수 미 (010-4136-7432)

임야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坪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

투자자모심
•월2부 수익금지급
•확실한 담보130%
•안전보장,수익보장,비밀보장
•최소 5,000만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목장용지급매
위 치: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367, 367-6, 367-9 등 10개번지
목장용지:12343㎡(3734평)
건 평:2350㎡(약700평),축사(한우 약 50두 이상 사육가능), 견사 주택(104㎡),염소막사,버서재배사 등
매 도 가:1억 7천만원(은행대출 1억포함)
연락처 ☎010-3617-8810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엄청 UP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친환경 방수제품 | 6년 하자보증 | 특허 방수공법 특허 제 0544371호
본사의 외벽방수 전용제품인
반트와 하우징코디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면,
특허받은 국내유일의 외벽방수공법이 건물수명을 연장
다양한 컬러 마감으로 획기적인 리모델링효과
때가 타지 않는 고광택 코팅으로 새집효과 지속 (6년하자보증)
세라믹 특수단열소재로 냉난방비 절감 (옵션)
페인트가 아닙니다!
친환경 & 완벽방수
단열 & 리모델링효과
상가건물 시공전
상가건물 시공후
학교건물 시공후 (완공현)
간단한 물걸레질만으로도 외벽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지사 (062)511-0444
홈/페/이/지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점 (061)284-0485 순천지점 (061)726-0482
여수지점 (061)683-0485 광양지점 (061)795-0485